

2017년 9월 13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세계개편 기대로 사상 최고치 경신 허리케인 피해 복구 수혜 업종 및 금융주 상승 주도

므누신, “모든 힘을 세계개편에 집중 할 것”

유럽증시는 도이체방크(+3.57%), 코메르츠방크(+2.90%) 등 금융주가 전일에 이어 상승을 주도. 더불어 폭스바겐(+1.95%), 푸조(+3.76%) 등 자동차 업종도 상승. 미 증시도 전일에 이어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 출발. 특히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세계개편에 대해 집중 할 것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결과. 한편, 오후 들어 애플이 신제품 발표 이후 하락 전환하자 상승폭을 축소하기도 했으나, 허리케인 피해 복구 수혜 업종인 소매판매 및 자동차 등의 강세로 결국 강보합으로 마감(다우 +0.28%, 나스닥 +0.34%, S&P500 +0.34%, 러셀 2000 +0.61%)

미 증시는 ①므누신 재무장관의 세계개편 발언 ②애플 신제품 발표의 영향을 받음. 먼저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 추진하는 세계개편의 소급 적용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 라고 언급. 더 나아가 “예산안 문제가 있어 법인세 인하까지는 어려울 수 있으나 최대한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발표.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최근 부채한도를 3 개월 연장하는데 집중했다. 이제는 모든 힘을 세계개편에 집중 할 것이다” 라고 주장. 한편, 14 일(목) 미 상원의 금융위원회에서는 세계개편 관련 청문회가 있어 주목. 이러한 미 정부의 적극적인 세계개편안 진행 소식이 알려지자 국채금리 상승. 이에 힘입어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며 미 증시 상승.

한편,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 제품을 발표. 시장의 예상과 달리 아이폰 7S 시리즈가 아닌 아이폰 8으로 넘버를 상향. 아이폰 8 시리즈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사용. 더불어 상스테레오 스피커에 A11 바이오닉 프로세서, 무선충전, 증강현실 등이 특징. 출고가는 699 달러부터 시작하며 주문은 15일부터 하며 22일부터 구입이 가능. 10주년 기념제품인 아이폰 X는 홈버튼이 사라지고 안면인식으로 락 해제가 특징. 더불어 5.8인치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 사용. 가격은 999 달러부터 시작하며 시장 예상보다는 낮은 가격. 문제는 10월 27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판매는 11월 3일부터 라고 발표. 이 결과 애플을 비롯한 애플 관련주가 하락 전환하며 미 증시에 부담

애플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365.47	+0.27	홍콩항셱	27,972.24	+0.06
KOSDAQ	660.05	+0.54	영국	7,400.69	-0.17
DOW	22,118.86	+0.28	독일	12,524.77	+0.40
NASDAQ	6,454.28	+0.34	프랑스	5,209.01	+0.62
S&P 500	2,496.48	+0.34	스페인	10,336.20	+0.13
상하이종합	3,379.49	+0.09	그리스	810.75	+0.58
일본	19,776.62	+1.18	이탈리아	22,233.40	+0.4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 소매판매업종 강세

애플(-0.42%)은 아이폰8 발표에 힘입어 장중 상승하기도 했으나 10주년 기념폰인 아이폰X의 출시가 11월로 미뤄졌다고 발표되자 하락 전환했다. 다만 새로운 제품에 대한 기대속에 장 후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큐로브(+0.44%), 브로드컴(-0.24%), 스카이웍(-0.30%) 등 관련 부품주도 상승폭이 축소되거나 하락 전환했다. 한편, JP모건이 칩 메이커 종목들에 대해 애플의 DRAM 수요 증가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하자 마이크론(+2.54%) 등 관련 종목들은 상승했다.

JP모건(+1.23%), BOA(+2.53%), 씨티그룹(+1.60%) 등 금융주는 세계개편 기대에 힘입어 국채금리 상승하자 강세를 보였다. 갭(+6.44%)은 JP모건 등이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급등했다. 더불어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 대한 기대 속에 L브랜드(+3.85%), 메이시스(+3.45%), 월마트(+0.67%), 베스트바이(+1.48%) 등 소매업종과 교체 수요 증가 기대에 따른 포드(+1.58%), Gm(+1.45%) 등 자동차 업종도 동반 상승했다. 반면, 넥스테라에너지(-1.50%), 아메리칸일렉트릭파워(-1.93%), PG&E(-1.96%) 등 유틸리티 업종은 국채금리 상승과 플로리다 전력망 피해 등의 영향으로 부진했다. 맥도날드(-3.22%)은 투자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며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19%	대형 가치주 ETF	+0.58%
에너지섹터 ETF	+2.18%	중형 가치주 ETF	+0.39%
소매업체 ETF	+1.51%	소형 가치주 ETF	+0.86%
금융섹터 ETF	+1.18%	배당주 ETF	+0.03%
기술섹터 ETF	+0.24%	변동성 ETF	-2.71%
소셜 미디어업체 ETF	+0.50%	대형 성장주 ETF	+0.23%
인터넷업체 ETF	+0.41%	중형 성장주 ETF	+0.48%
리츠업체 ETF	-1.08%	소형 성장주 ETF	+0.44%
주택건설업체 ETF	+1.52%	신흥국 고배당 ETF	-0.25%
바이오섹터 ETF	+0.22%	신흥국 저변동성 ETF	-0.05%
헬스케어 ETF	+0.22%	하이일드 ETF	+0.13%
곡물 ETF	-0.58%	물가연동채 ETF	-0.17%
반도체 ETF	+0.38%	Long/short ETF	-0.8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78.70	+0.52%	+2.29%	+2.22%
소재	350.64	+0.82%	+2.55%	+3.76%
산업재	587.53	+0.52%	+1.90%	+0.47%
경기소비재	714.66	+0.44%	+0.31%	-0.68%
필수소비재	569.22	+0.14%	+0.71%	-0.07%
헬스케어	961.72	+0.21%	+3.04%	+5.23%
금융	410.41	+1.21%	+2.29%	-1.15%
IT	1,017.29	+0.13%	+1.46%	+2.18%
통신	152.43	+1.37%	-1.74%	-5.24%
유틸리티	276.69	-1.75%	-0.21%	+1.14%
부동산	203.50	-1.18%	+0.40%	+1.4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애플 관련주 부담

MSCI 한국 지수는 0.22% MSCI 신흥 지수도 0.11%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899 계약)에 힘입어 0.15pt 상승한 310.7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8.9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험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세제개편 기대에 힘입어 증가상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를 주도한 업종은 금융주였으며 특히 허리케인 피해복구 관련 소매판매 업종들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JP 모건이 애플 영향으로 하반기 DRAM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자 일부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한 점도 특징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 증시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애플이 아이폰 X 에 대해 올해 11 월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비록 아이폰 8 의 출시는 9 월 22 일부터 진행하지만 충성도가 높은 애플 고객들의 특성상 아이폰 8 을 구매하기 보다는 아이폰 X 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애플 관련주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한국 증시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영국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9%로 전월(2.6%) 보다 상승했다. 핵심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2.7%로 발표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졌다.

미국 7 월 채용공고가 전월(612 만건) 보다 증가한 617 만 건으로 발표되었다. 시장의 예상(596 만 건) 보다는 양호했다. 다만 허리케인 피해의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미국 NFIB 소기업낙관지수는 전월(105.2) 보다 소폭 상향된 105.3 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기 전이라서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파운드화 강세

국제유가는 OPEC 이 월간보고서를 통해 “8 월 원유생산량이 전월 대비 하루 7 만 9 천 배럴 감소한 3,276 만 배럴을 기록했다” 라고 발표하자 상승 했다. 또한 “2018년에는 수요가 예상보다 더 증가하며 공급의 균형이 더욱 회복될 것이다” 라고 주장한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특히 올해 원유 수요가 지난달 전망 보다 하루 5 만 배럴 증가한 142 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EIA 도 단기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미 원유 생산량을 하루 925 만 배럴로 전월 발표보다 하루 약 4 만 배럴 하향 조정한 점도 상승 요인이다. 다만 허리케인 하비의 인해 정유시설의 운영이 크게 감소했다는 발표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달러는 므누신 재무장관이 세제개편을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파운드화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달러 대비 1% 넘게 강세를 보이자 달러는 강세 폭이 축소되었다. 한편, 엔화는 북한 리스크 완화 및 미국의 허리케인 피해가 예상을 하회한다는 점이 부각되며 안전자산 선호심리 완화로 달러 대비 0.7%대 약세를 보이며 110 엔을 상회했다.

국채금리는 므누신 재무장관의 세제개편 관련 발언에 힘입어 상승했다. 더불어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2.28 배에 그치는 등 국채 수요가 약했다는 점도 상승 요인이었다.

금은 달러 강세 및 안전자산 선호심리 약화로 하락했다. 구리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했다. 여타 비철금속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을 축소하거나 하락 전환했다. 한편,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 시장에서 철광석은 2.43%, 철근은 0.82% 상승했다. 곡물은 미 농무부가 옥수수과 대두의 생산량 전망을 상향 조정하자 하락했다. 다만 밀은 수확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상승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48.23	+0.33	-0.88	Dollar Index	91.928	+0.06	-0.35
브렌트유	54.27	+0.80	+1.67	EUR/USD	1.1967	+0.12	+0.44
금	1,332.70	-0.22	-0.88	USD/JPY	110.17	+0.71	+1.25
은	17.890	-0.07	-0.28	GBP/USD	1.3283	+0.91	+1.92
알루미늄	2,137.00	+0.71	+1.54	USD/CHF	0.9604	+0.43	+0.54
전기동	6,668.00	-1.19	-3.38	AUD/USD	0.8019	-0.12	+0.29
아연	6,352.33	-0.71	-1.10	USD/CAD	1.2186	+0.63	-1.52
옥수수	351.50	-1.68	-1.95	USD/BRL	3.1262	+0.75	-0.42
밀	442.00	+1.67	-0.23	USD/CNH	6.536	-0.04	-0.07
대두	950.50	-0.99	-1.86	USD/KRW	1128.5	-0.30	-0.23
커피	135.05	+2.43	+5.63	USD/KRW NDF1M	1128.96	-0.09	-0.32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167	+3.66	+10.76	스페인	1.594	+3.40	+6.90
한국	2.247	-0.50	-5.80	포르투갈	2.831	+4.00	+2.20
일본	0.020	+1.00	+1.40	그리스	5.412	-1.00	-3.30
독일	0.401	+6.50	+6.30	이탈리아	2.017	+5.70	+2.30